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오후찬양예배는 '몽골 단기선교팀 파송예배'로 드립니다. 다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명의 몽골 단기선교팀이 이번 주 월(7/16)~토(7/21)까지 몽골 다르항 예수마을교회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합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과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 주일낮예배 기도담당은 박성근 집사님입니다. 오후찬양예배는 황희용 권사님입니다.
5. 이번 주 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는 몽골 단기선교로 인해 쉽니다.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6.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8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격려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7월 1일	7월 8일	7월 15일	7월 22일
예배기도(오전)	박성대 집사	신재준 집사	이현호 집사	박성근 집사
예배기도(오후)	임명희 권사	.	김금옥 권사	황희용 권사
주일식사담당	몽골선교 음식바자회	헵시바 목장 (김금옥 권사)	양떼 목장 (황희용 권사)	늬바 목장 (유숙정 권사)
토요일청소	둘로스 목장 (7/7)	주사랑 목장 (7/14)	갈렙.아론목장 (7/21)	에덴 목장 (7/28)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7월 16~21일에 있을 몽골단기선교를 위해서
2. 남여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병환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국내) 사역자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 영 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다같이
대표기도	이현호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단
의
미
를
심
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
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 영진 목사

<몽골 단기선교 파송예배>

찬송	다같이
기도	김금옥 권사
성경봉독	창 37:5-11 허영진 목사
말씀선포	'꿈, 미래를 창조하는 힘' 허영진 목사
일정소개	오승현 단장
K - P O P	허찬송, 추스테파니
태권도시범(태권무)	권다정, 권도형, 허성경, 허찬송
특송	몽골 선교팀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이번주 주중예배는 몽골 단기선교로 인해 쉽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좋은 추억 쌓기’

지루한 장맛비가 그칠 새라 한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삼복더위 가운데 초복을 곧 앞두고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 있다. 날씨처럼 이래저래 불편한 심기가 드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래서일까. 종종 우리 삶이 힘들다고 푸념하는 소릴 하거나 듣곤 한다.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사느냐고. 왜 나만 힘든 인생을 사느냐고,” 혹독했던 때에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처럼 삶을 갈기갈기 찢어 놓듯이 그렇게 멍든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사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모두의 사연은 깊고 아프다. 아려오는 마음 한 끝에 고스란히 남은 지난날의 추억을 더듬어 찾는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얼마 전, 큰 아이 방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빗바랜 옛 사진을 발견하고선 한참이나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뭘 그렇게 오래 보느냐고 아이가 물었다. 대답대신 그냥 웃어 주었다. 그 중에서도 15-6년 전 찍었던 가족사진을 보면서 많은 장면이 뇌리에 스쳐 지나갔다. 걱정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그 때가 왜 그리움으로 다가오는지. 그만큼 어려움의 비바람을 통과하고 마치 봄의 나른함으로 지나간 세월을 회상할 때면, 과거의 걱정이 아름다움으로 남아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가 살라면 손사래를 치겠지만, 그럼에도 그 시절이 좋은 것은 단지 추억의 아련함 때문일까.

이미 봄은 지나갔고 여름, 그것도 한여름의 중심부에 서 있다. 날씨 탓으로 심기 불편도 하겠지만, 매일의 삶이 나쁜 일들로만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삶의 좋은 점을 보자. 흔히 말하기를 인생을 바다를 노 저어 가는 여정에 비유하곤 한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예겐 인생 여정이란 무작위로 불어 닥치는 폭풍을 그냥 곧 대로 맞이하며 속명으로 여기고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을 붙들고 가기 때문이다. 파고가 아무리 높아도 힘차게 노 저어 간다. 가야 할 항구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 힘찬 기도와 찬송으로 풍랑을 넘어야 한다. 먼 훗날 믿음의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잊고 있었던 옛 사진이라도 꺼내어 보자. 그래서 힘들어도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 보면 어떨까 싶다.

Written by 허영진